

#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및 시사점

**허재철**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부연구위원 (jcheo@kiep.go.kr, Tel: 044-414-1042)

**김주혜**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joohye@kiep.go.kr, Tel: 044-414-1283)



## 차 례

1.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2. 재확산에 따른 경제적 영향
3. 전망 및 시사점

## 주요 내용

- ▶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종이 유행하는 가운데, 2020년 연초 급증 이후 줄곧 안정세를 보이던 중국 내 확진자 수가 2022년 2월부터 다시 급격히 증가함.
  -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선전(深圳)과 상하이(上海), 장춘(长春), 베이징(北京) 등 중국의 주요 대도시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인구 밀집도가 높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우리 경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중국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줄곧 강력한 중앙 집권적 통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부터는 △조기 발견 △빠른 포위 △전파 차단을 핵심으로 하는 '제로 코로나(动态清零)'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현재 중국에서는 다섯 종의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이 사용 승인을 받아 접종되고 있고, 자국산 코로나19 치료제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백신과 달리 치료제의 경우 최근 외국산 수입을 승인함.
- ▶ 감염 재확산과 주요 도시의 잇따른 봉쇄로 인해 중국경제는 물론 재중 한국기업의 현지 생산과 부품 수급, 그리고 우리 제조업의 소재·부품 공급망에 있어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음.
  - 2022년 4월 중국의 비제조업 PMI가 41.9까지 급락했고, 서비스업 PMI는 40.0을 기록하였으며, 제조업 PMI는 3개월 연속 하락해 2년래 최저치인 47.4를 기록함.
  - 한국과의 경제교류가 활발한 상하이·베이징·산둥·장쑤 등 지역도 봉쇄조치의 영향을 받아 현지 한국 생산법인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고, 영업 및 서비스 법인 또한 매장의 정상 운영에 타격을 받음.
  - 상하이에 이어 수도 베이징까지 전면 봉쇄에 들어갈 경우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서비스업과 자동차 제조업을 중심으로 베이징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
- ▶ 중국은 적어도 2022년 말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면서 산발적 집단 감염에 강력한 통제조치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최근과 같은 산발적 집단 감염이 통제 불능의 대규모 감염 사태로 확산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강력한 통제정책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 우리는 재중 한국인 및 한국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함께, 공급망 안전 등 경제안보 관리를 위해서 코로나19 방역을 비롯한 보건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1.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 가. 확진자<sup>1)</sup> 수

- 2020년 연초 급증 이후 줄곧 안정세를 보이던 중국 내 확진자 수가 2022년 2월부터 다시 급격히 증가함.
  - 2019년 12월 중국 우한(武汉)시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최초 보고된 이후 2020년 2월에 1만 5천여 명까지 확진자 수가 급증하였으나, 동월 말부터 1천 명 이하로 감소하며 줄곧 안정세를 유지하였음.
    -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던 2020년 4월 말, 코로나19 비상 상황을 종료하고 방역의 일상화와 함께 경제활동을 비롯한 일상생활의 정상화를 추진
  - 하지만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종이 주종을 이룬 2022년 2월부터 중국에서도 국지적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더니, 3월에는 확진자 수가 5만 명 이상을 넘으며 최고 기록을 경신함.
    - 이에 따라 선전(深圳)시와 지린성(吉林省)이 3월 14일부터, 그리고 랴오닝성(辽宁省)의 선양(沈阳)시는 3월 24일부터 지역 전체에 대한 봉쇄에 들어갔고, 이후 각 구역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봉쇄를 해제
    - 상하이(上海)시는 3월 28일부터 약 열흘 동안 동과 서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봉쇄에 들어갔으나, 감염 상황이 지속되면서 5월 9일 현재까지 부분적 봉쇄가 지속되고 있음.
    - 베이징(北京)시는 4월 말부터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중·고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지역 봉쇄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5월 9일 기준, 베이징시의 고위험구역 21곳, 중위험구역 35곳, 일일 신규 확진자 74명).
    - 중국정부는 6월 청두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하계 유니버시아드와 9월 항저우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아시안게임, 그리고 12월 광둥성 산터우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아시아청소년경기대회도 연기 또는 취소함.<sup>2)</sup>
  - 2022년 5월 9일 기준, 중국 전체의 확진자는 4만 4,888명이고 누적 확진자는 133만 6,936명, 누적 사망자는 1만 5,450명으로 집계됨.<sup>3)</sup>

그림 1.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 추이(2019년 12월~2022년 5월 9일)



자료: WHO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1) 일반적으로 증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PCR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으면 확진자로 분류하나, 중국의 경우 무증상 감염자를 확진자와 별도로 분류하여 집계함. 본고에서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적 기준에 따라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양성 판정을 기준으로 확진자 수를 나타내며, 특별히 중국의 데이터를 사용해야 할 경우 해당 부분에 이를 명기함.

2) 新华网, 「杭州亚运会将延期举办 汕头亚青会取消」, [http://csj.news.cn/2022-05/07/c\\_1310585607.htm](http://csj.news.cn/2022-05/07/c_1310585607.htm)(검색일: 2022. 5. 7).

3) WHO(COVID-19) Homepage, <https://covid19.who.int/region/wpro/country/cn>(검색일: 2022. 5. 10).

■ 중국 내 확진자 수가 급증 추세에 있으나, 절대 수(또는 인구 대비 비중)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

-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코로나19 총 누적 확진자 수에서 중국(약 218만 명)은 미국(약 8천만 명)이나 주요 유럽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임.<sup>4)</sup>
- 2022년 4월 한 달의 누적 확진자 수에서도 중국(약 74만 명)은 미국(약 120만 명), 독일(약 320만 명), 한국(약 340만 명), 일본(약 120만 명)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그림 2.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 지역 분포 (총 누적)



그림 3.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 지역 분포 (2022년 4월 한 달 누적)



주: 빨간색 원의 크기가 클수록 확진자 수가 많음을 의미.

자료: Johns Hopkins University & Medicine, <https://coronavirus.jhu.edu/map.html>(검색일: 2022. 4.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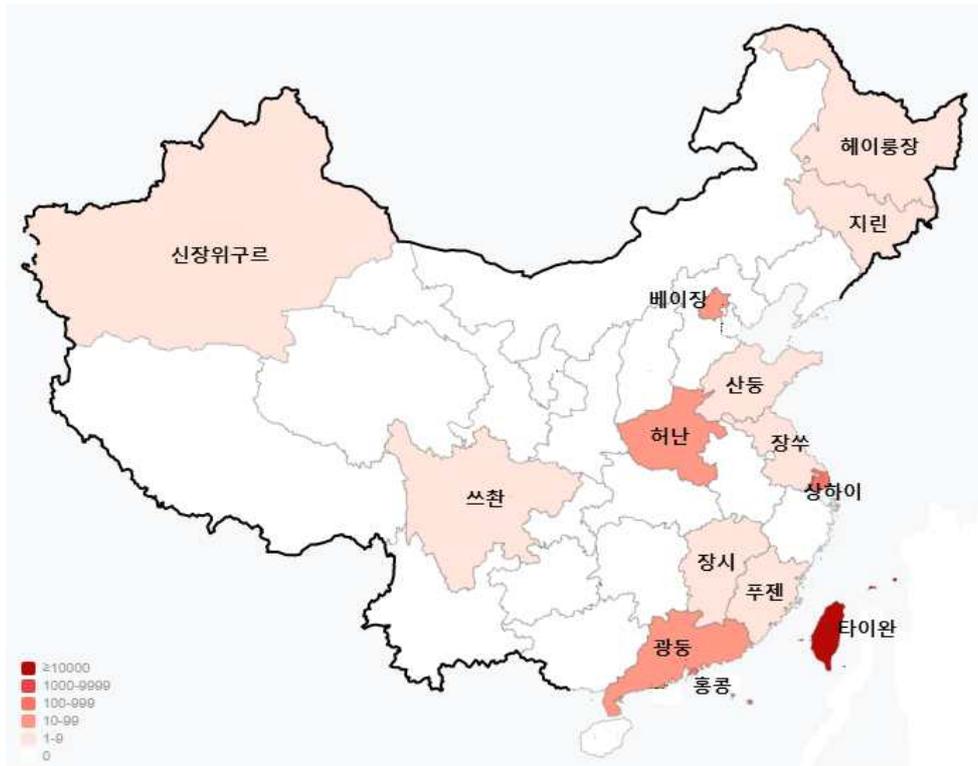
## 나. 감염 확산 지역

■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선전(深圳)과 상하이(上海), 장춘(长春), 베이징(北京) 등 중국의 주요 대도시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인구 밀집도가 높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임.

- 선전시는 중국에서 가장 경제규모가 큰 광둥성에 위치해 있고, 인구 약 1,750여만 명의 경제특별구역이자 수많은 글로벌 IT 기업 본사가 위치하고 있어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고 있으며,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하고 중국 내에서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도시 중의 하나임.
- 상하이시는 인구 약 2,500만 명 정도의 대도시로서 GRDP(2021년)는 4만 3,000억 위안 정도이고, 세계 1위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가진 중국 4대 직할시 중 하나임.
- 베이징시는 중국의 수도로서 인구는 2,000만 명이 조금 넘고, 중국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이 상주하며, 각종 중요 국내 및 국제 행사가 개최되는 대표 도시임.

4) 확진자 수는 ‘Johns Hopkins University & Medicine’의 데이터이며, 여기에서는 WHO와 달리 중국의 무증상 감염자도 확진자로 집계하는 것으로 보여 확진자의 숫자에 있어서 WHO와 차이가 있음.

그림 4. 중국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지역 분포(2022년 5월 3일 기준)



주: 중국에서는 확진자와 무증상 감염자를 분리하여 집계하며, 그림의 신규 확진자 지역 분포는 무증상 감염자를 제외한 확진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것임.

자료: 疫情实时大数据报告, [https://voice.baidu.com/act/newpneumonia/newpneumonia/?from=osari\\_aladin\\_banner](https://voice.baidu.com/act/newpneumonia/newpneumonia/?from=osari_aladin_banner)(검색일: 2022. 5. 3).

## 다. 방역조치

### 1) ‘제로 코로나’ 정책

■ ‘제로 코로나(动态清零)’ 정책은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의 총체적 방침으로, 2021년 12월 11일 국무원 합동방역기구(联防联控机制)의 기자회견에서 처음 언급됨.<sup>5)</sup>

- 중국정부는 ‘제로 코로나(动态清零)’가 ‘감염 제로(零感染)’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 ‘제로 코로나’의 핵심은 △조기 발견과 △빠른 포위, 그리고 △전파 차단이라고 말하며, “중국의 상황에서 사회적 비용이 가장 적게 들면서 사회적 효과를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함.

■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위험지역 구분 및 통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중국정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따라 중국의 각 지역을 고위험구역(高风险区)과 중위험구역(中风险区), 저위험구역(低风险区)으로 나누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음.

5) 「动态清零」, <https://baike.baidu.com/item/%E5%8A%A8%E6%80%81%E6%B8%85%E9%9B%B6/59451221?fr=aladdin>(검색일: 2022. 5. 1).

- 이렇게 각 지역의 코로나19 위험 정도를 알리는 작업과 함께, 감염 상황에 따라 봉쇄구역(封控区)과 관리구역(管控区), 예방구역(防范区)으로 나누어 통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표 1.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위험지역 및 통제 구분

구분		내용	단위	비고
위험 구분	고위험구역 (高风险区)	- 누적 감염자 수가 50명을 넘고 14일 이내에 집단성 감염이 발생한 지역	현(县), 시(市), 구(区)	5월 2일 기준, 베이징 7곳, 하이룽장 2곳
	중위험구역 (中风险区)	- 14일 이내에 신규 확진자가 있고, 누적 확진자 수가 50명을 초과하지 않은 지역 - 또는 누적 확진자가 50명을 넘으나 14일 이내에 집단성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	현(县), 시(市), 구(区)	5월 2일 기준, 베이징 28곳, 하이룽장 26곳, 상하이 13곳 등
	저위험구역 (低风险区)	- 14일 연속으로 신규 확진자가 없는 지역	현(县), 시(市), 구(区)	중·고 위험구역 외 기타 구역
통제 구분	봉쇄구역(封控区)	- [대상] 확진자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양성 판정을 받기 2일 전부터 거주한 구역 및 주요 활동 구역 - [조치] 구역 봉쇄, 집 밖 외출 금지, 문 앞 배달 - [해제 조건] 해당 구역에서 연속 14일간 신규 확진자가 없고, 마지막 밀접접촉자의 접촉일 14일 후 PCR 검사결과가 음성이며, 봉쇄 해제 2일 전 해당 구역 전원의 PCR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올 경우	작은 마을, 건물(楼栋), 건물라인 (单元)	중·고 위험구역 내에서 설정
	관리구역(管控区)	- [대상] 확진자에게 증상이 나타나거나 양성 판정을 받기 2일 전, 확진자에 의한 전파 위험이 있으나 구체 지역 또는 밀접접촉자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 [조치] 구역 밖 외출 금지, 집회 금지, 제한된 조건하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 구매 및 병원 왕래 가능 - [해제 조건] 봉쇄구역 해제 조건과 동일	작은 마을, 건물(楼栋), 건물라인 (单元)	
	예방구역(防范区)	- [대상] 봉쇄구역과 관리구역 이외의 모든 지역 - [조치] 일상적 방역활동 - [해제 조건] 봉쇄구역과 관리구역에 대한 모든 통제 해제 시	작은 마을, 건물(楼栋), 건물라인 (单元)	

주: 표에서 사용된 '확진자'는 무증상 감염자를 제외한 개념임.

감염 확산 추세에 따라 직할시나 성(省) 전체에 대해 통제정책을 실시하기도 함(예: 상하이시, 지린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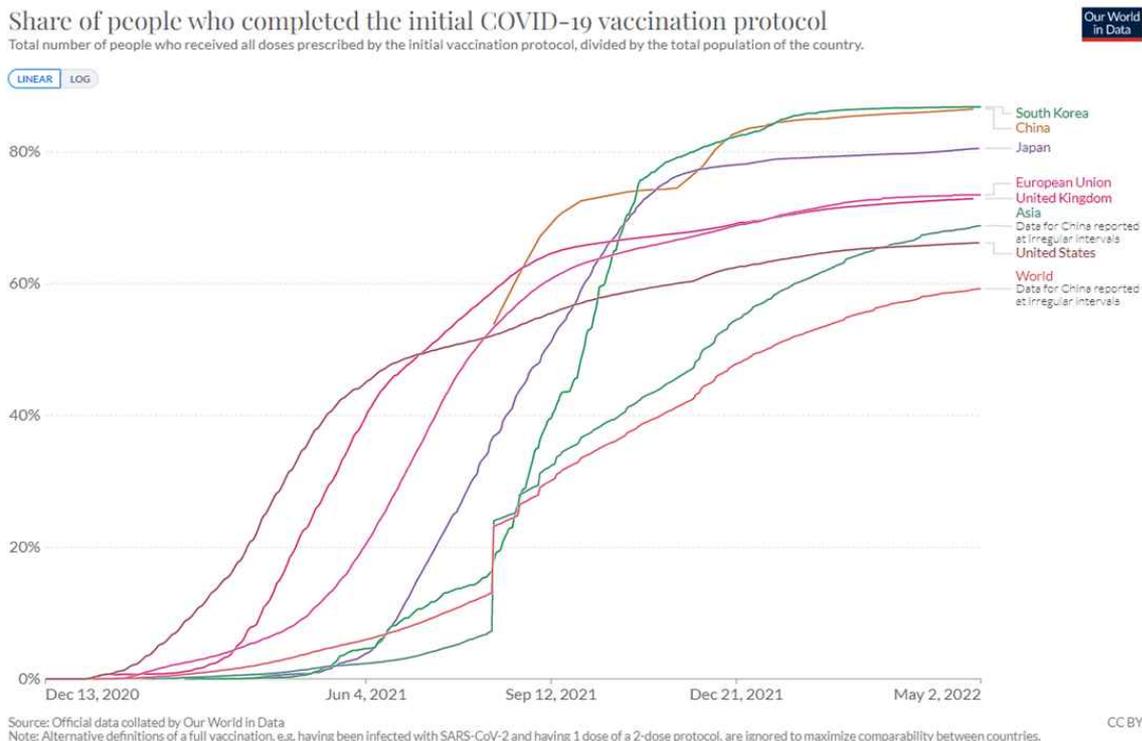
자료: 新华网, 「国务院联防联控机制印发《关于科学防治精准施策分区分级做好新冠肺炎疫情防控工作的指导意见》」,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20-02/18/c\\_1125592416.htm](http://www.xinhuanet.com/politics/2020-02/18/c_1125592416.htm); 360常识大全网, 「封控区是中风险还是高风险 封控区管控区防范区的区别」, <http://www.360changshi.com/bianminfuwu/1037746.html>; 「中风险地区与封控区有什么区别? 疾控专家权威解答」, <https://baijiahao.baidu.com/s?id=1728798292510414583&wfr=spider&for=pc>(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2. 5. 1)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 백신 및 치료제 개발

■ 중국에서는 다섯 종의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이 사용 승인을 받아 접종되고 있으며, 접종률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임.

- ‘시노팜(Sinopharm, 国药集团) 베이징 생물제품연구소,’ ‘시노팜 우한(武汉) 생물제품연구소,’ ‘시노백(Sinovac, 科兴中维)’이 각각 개발한 △불활성화 백신(inactivated vaccine) 3종과 ‘칸시노(Cansino, 康希诺生物)’·‘군사과학원 군사의학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Adenovirus vector vaccine) 1종, 그리고 ‘즈페이 롱컴(Anhui Zhifei Longcom Bio, 安徽智飞龙科马生物制药)’·‘군사과학원 미생물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유전자 변형 단백질 백신(CHO 세포 유래) 1종(2022년 3월 1일 승인)이 현재 접종되고 있음.<sup>6)</sup>
- 2022년 4월 30일 기준, 중국에서 2차 백신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약 12억 5천만 명으로 전 국민의 86.5%에 해당하며, 이는 우리나라(86.83%)와 비슷한 수준임.
- 시노팜은 세계 최초로 오미크론 전용 백신(mRNA)을 개발하고 있으며, 저장성 항저우(杭州)시에서 임상시험 단계에 들어감.<sup>7)</sup>

그림 5. 중국 및 주요국(지역)의 백신 접종(2차)률(2022년 5월 2일 기준)



자료: Our World In Data, <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explore-the-global-situation>(검색일: 2022. 5. 3).

6) JETRO, 「中国, 新型コロナワクチンの交互接種を開始」, <https://www.jetro.go.jp/biznews/2022/02/f82b9d8ed8d27ecf.html>(검색일: 2022. 5. 1).

7) 「奥密克戎变异株新冠病毒灭活疫苗临床试验正式启动」, [http://k.sina.com.cn/article\\_1699432410\\_654b47da02000ynny.html](http://k.sina.com.cn/article_1699432410_654b47da02000ynny.html)(검색일: 2022. 5. 2).

- 중국은 자국산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백신과 달리 치료제의 경우 최근 외국산 수입을 승인하였음.
  - 2021년 12월 8일, 중국정부는 ‘팅성화창의약기술(腾盛华创医药技术, 北京)’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주사액) ‘BRII-196’과 ‘BRII-198’ 2종에 대해 긴급 승인하여 처음으로 치료제 사용을 허용함.
  - 한편 중국 당국은 2022년 2월 11일 미국 화이자(Pfizer)사가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Paxlovid)’에 대한 수입을 조건부로 처음 승인함.
    - 이에 따라 수입된 약 2만 상자의 ‘팍스로비드’가 3월 17일부터 중국 각지에 분배되었으며,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도 포함됨.
  - 2022년 1월 20일 국제의약품특허플(MPP)<sup>8)</sup>은 머크(MDS)사가 개발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Molnupiravir)’의 제네릭의약품 생산기업으로 전 세계 27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여기에 중국기업 5개 사가 포함됨.
    - 또한 2022년 3월 18일 화이자사가 개발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제네릭의약품 생산 기업으로 전 세계 35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여기에도 중국기업 5개 사가 포함됨.
  - ‘상하이윈스(上海君实生物医药科技股份有限公司)’사가 중국의 다른 연구기관과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VV116’은 현재 3상 임상시험 중임.<sup>9)</sup>
    - ‘VV116’은 2021년 12월 30일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미 긴급 사용이 승인된 바 있음.

## 2. 재확산에 따른 경제적 영향

### 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sup>10)</sup>

- 중국정부의 봉쇄조치가 강화되기 시작한 3월 이후 가장 먼저 서비스 업종이 영향을 받았고, 중국 내 제조업 공급망에도 타격을 주고 있어 봉쇄정책이 중국경제의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sup>11)</sup>
  - 2022년 4월 기준 중국의 비제조업 PMI는 41.9까지 급락했고, 서비스업 PMI는 40.0을 기록함.
    - 비제조업 PMI에서 특히 신규 주문이 전월대비 8.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 업종별로는 21개 업종 중 19개 업종이 수축 구간에 있고, 그중 △항공운송 △숙박 △식음료 업종을 중심으로 경기가 위축됨.

8) 국제의약품플(MPP)은 유엔이 지원하는 공공위생 단체로서, 중·저소득 국가 내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각종 의약품의 특허권 보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후발 의약품의 제조 및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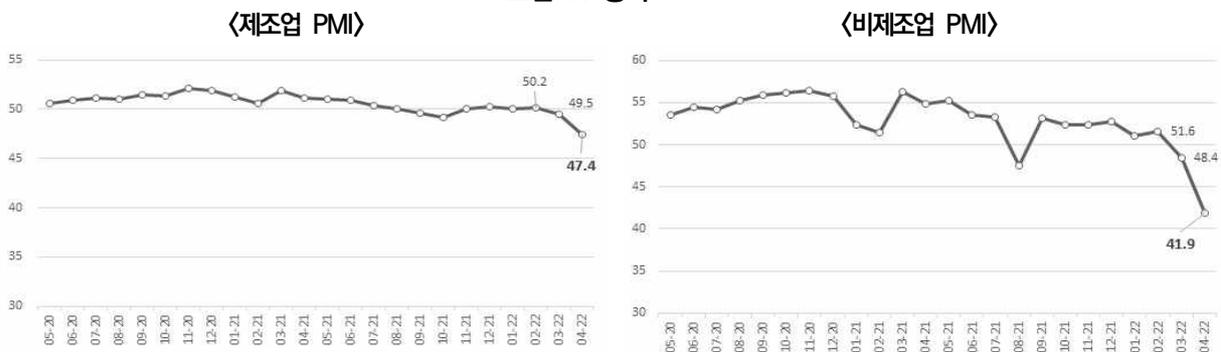
9) 「新冠口服药VV116完成III期临床研究首例给药, 公布期临床数据」, <https://baijiahao.baidu.com/s?id=1727507096812111214&wfr=spider&for=pc>(검색일: 2022. 5. 2).

10) 현재 상하이 봉쇄(3월 27일 이후)로 인한 영향을 반영할 수 있는 중국의 4월 주요 경제지표 중 PMI만 발표된 상황으로, 해당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함.

11) 「国家统计局服务业调查中心高级统计师赵庆河解读2022年4月中国采购经理指数」(2022. 4. 30), 国家统计局, [http://www.stats.gov.cn/tjsj/sj/d/202204/t20220429\\_1830168.html](http://www.stats.gov.cn/tjsj/sj/d/202204/t20220429_1830168.html); 「「图解」一图看懂2022年4月PMI数据」(2022. 5. 2), 潇湘晨报, <https://baijiahao.baidu.com/s?id=1731698121962603967&wfr=spider&for=pc>(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2. 5. 2).

- 또한 제조업 PMI는 3개월 연속 하락해 2년래 최저치인 47.4를 기록하며 제조업 경기가 급격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공급자 배송시간 지수가 전월대비 9.3%p 하락해 제조업 원자재 공급상의 납품시간 지연이 나타나고 있음.
  - 생산지수와 신규 주문 또한 전월대비 각각 5.1%p, 6.2%p 떨어져 제조업 생산활동이 둔화되고 시장수요가 감소했음.
- 중국정부의 봉쇄조치는 ‘도로 통제 → 제조 부품 등 자재 공급 지연 및 단절 → 생산 차질’로 이어져 중국 내 제조업 공급망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수출입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도 우려되는 상황임.
- 최근 세계은행은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2022년 중국의 GDP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인 5.1%(22년 1월)에서 0.6%p(22년 4월) 하락할 것이라 전망했고, IMF도 코로나19 재확산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중국 GDP 성장률을 0.4%p 하향 조정한 4.4%로 전망(22년 4월)<sup>12)</sup>

그림 6. 중국 PMI



자료: CEIC, 국가통계국(검색일: 2022. 5. 1).

## 나.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의 일환으로 봉쇄조치를 시행하면서 재중 한국기업은 현지 생산 및 부품 수급에 난항을 겪었으며, 국내 제조업 공급망에도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음.
  - 2021년 기준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입 의존도는 각각 25.3%, 22.5%를 기록했고, 한국의 전체 중간재 수입에서 중국의 비중이 28.4%, 자본재 수입에서는 32%를 차지하였음.<sup>13)</sup>
  - 같은 해 주요 소재 및 부품의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전자집적회로(HS Code 8542)가 41.2% △배터리(HS Code 8072)가 89.2% △희토류(HS Code 2805)가 92.8%에 달하고,<sup>14)</sup> △각종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입의존도 또한 높은 편임.
    - 2022년 3월 한국의 자동차 제조 공급망에 타격을 주었던 ‘절연전선 케이블·광섬유 케이블(HS Code 8544 기준, 자동차 부품인 와이어링 하네스 포함)’ 또한 2021년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66%에 달함.

12)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의 경제적 영향 및 전망」(2022. 4. 22), 한국은행, pp. 19~22.

13) 한국무역협회 무역데이터, <https://stat.kita.net/newMain.screen>(검색일: 2022. 4. 29).

14) 상동.

- 중국정부가 봉쇄조치를 취한 4월 30일 기준 11개 성·시(省·市)의 106개 구역이 코로나19 중·고 위험구역으로 지정됨.
- 이 중 한국과의 경제교류가 활발한 상하이·베이징·산둥·장쑤 등 지역에서도 현지 한국 생산법인(자동차, 화학, 식품 제조업 등)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고, 영업 및 서비스 법인(도·소매업 중심) 또한 매장을 정상 운영할 수 없어 매출에 타격을 입음.

표 2. 중국 코로나19 중·고 위험구역(4월 30일 기준)

지역명	중·고 위험구역 수	현재 감염자 수(증감추세)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및 투자 중 해당지역 비중(%)				
			수출	수입	투자	제조	서비스
상하이시	중위험 13	22,570명(2만 명대 유지)	9.7	5.6	4.3	1.4	29.2
지린성	중위험 9	1,467명(▼)	0.2	0.5	0.3	0.3	0.9
헤이룽장성	고위험 2, 중위험 27	320명(300명대 유지)	0.04	0.3	0.1	0.05	0.3
베이징시	고위험 6, 중위험 19	277명(▲)	2.8	1.1	6.2	4.0	25.2
산둥성	중위험 4	67명(60명대 유지)	7.2	14.8	6.9	6.6	7.1
장쑤성	중위험 4	66명(▼)	28.2	21.2	41.5	44.8	17.5
허난성	중위험 2	42명(40명대 유지)	1.8	1.3	0.1	0.1	0.2
후난성	중위험 5	41명(▲)	0.3	0.9	0.2	0.2	0.05
랴오닝성	중위험 5	35명(▲)	2.6	5.1	7.6	8.4	1.7
허베이성	중위험 3	19명(18~20명 사이 유지)	0.8	2.4	0.5	0.5	0.01

주: 1) 전국 고위험 8개 구역, 중위험 98개 구역임. 상술한 구역 외 네이멍구 또한 4곳이 중위험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한국과의 교역은 1% 미만이고, 지난 5년간 투자도 전무해 제외.

2) 현재 감염자 수 = 누적 확진자 수 - 누적 치료자 수 - 누적 사망자 수를 의미하며, 증감추세는 4월 30일 이전 일주일 추세를 반영.

3) 교역액 2018년 기준, 투자액 2017~21년 5년 누계 기준.

자료: 「新型冠状病毒肺炎疫情实时追踪」, 腾讯新闻, <https://news.qq.com/zt2020/page/feiyan.htm#/?pool=bj>; 「卫生健康委]疫情风险等级查询」, 中国政府网, <http://bmfww.www.gov.cn/yqfjdxjcx/risk.html>; 「国务院联防联控机制印发《关于科学防治精准施策分区分级做好新冠肺炎疫情防控工作指导意见》」(2022. 2. 18), 新华网,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20-02/18/c\\_1125592416.htm](http://www.xinhuanet.com/politics/2020-02/18/c_1125592416.htm)(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2. 4. 30);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sub/detailedCondition.do>(검색일 2022. 4. 29); 최원석(2021), 「중국 화동지역의 14·5 규획기간 경제정책 방향 및 전망」, p. 7; 최지원(2021), 「중국 동북지역의 14·5 규획기간 경제정책 방향 및 전망」, pp. 5~8; 박진희(2021), 「중국 중부지역의 14·5 규획기간 경제정책 방향 및 전망」, pp. 6~8; 김주혜(2021), 「중국 환발해 지역의 14·5 규획기간 경제정책 방향 및 전망」, pp. 6~8.

- **[상하이]** 상하이 소재 한국기업은 대부분 영업 및 서비스 법인으로(일부 식품·화학·화장품 생산법인)<sup>15)</sup>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도·소매 업종의 피해가 컸고, 중국 반도체산업 규모의 1/4를 차지하는 상하이의 조업 중단과 항만·공항의 물류기능 약화로 관련 한국기업의 현지 생산 및 부품 수급에 차질 우려
- **[서비스업: 도·소매업]** 상하이는 지난 5년간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 투자 1위(약 30%, 2017~21년 누계) 지역으로, 도·소매업 투자가 50% 이상을 차지함.
- 관련 기업 중 이랜드는 상하이 내 스파오나 미쏘 등 230여 개 오프라인 매장이 휴업 중이고, SPC 파리바게

15) 「중국 상하이시 봉쇄에 따른 공급망 영향 점검」(2022. 3. 29),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pp. 1~2.

16) **한국의 대상하이 주요 투자 업종**은 △도·소매업(50.4%) △제조업(28.2%) △전문 과학 및 서비스업(4.6%) 등이고, 제조업 세부 업종으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외에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차 금속 제조업이 있음(2017~21년 누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sub/detailedCondition.do>(검색일: 2022. 4. 29).

트와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또한 대부분의 매장 운영을 중단해 매출 타격이 불가피함.<sup>17)</sup>

- **[제조업: 식품, 화학, 화장품]** 현지 식품제조 기업의 생산공장은 가동을 재개했지만, 화장품 및 화학 업종은 유통망이 원활하지 않아 피해가 있는 상황임.
  - △오리온 상하이 공장의 가동률은 70% 정도로 회복 △농심 공장 가동 재개 △아모레퍼시픽 한 달간 공장 가동 중지(중국 생산의 40%를 차지) △LG생활건강, 애경산업은 유통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sup>18)</sup>
- **[제조업: 반도체]** 2018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전자집적회로 수출입에서 상하이의 비중(수출 7.6%, 수입 3.2%)은 크지 않지만, 상하이와 공급망이 긴밀히 연계된 장쑤성은 수출 1위 지역이고 수입도 큰 비중을 차지(수출 37%, 수입 24.7%)하고 있어, 관련 한국기업의 현지 생산 및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sup>19)</sup>
  - 상하이는 중국 반도체산업 규모의 1/4을 차지하고, 창장삼각주(상하이시·저장성·장쑤성) 지역은 반도체 등 제조업 공급망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봉쇄로 인한 영향이 저장성·장쑤성까지 번지는 것은 물론 중국 전체 반도체산업에도 타격을 주고 있으며, 반도체가 사용되는 주요 업종(자동차 등)의 생산도 차질
  - 장쑤성 내 중위험구역은 4곳으로(취저우시 쑤이닝, 쑤저우시 쿤산 각 2개 구역) 통행 제한 등 조치가 시행 중이고, 위험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우시시에는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위치
  - 상하이시 정부는 4월 16일 △집적회로 △자동차 제조 △장비 제조 △바이오의약품 등 666개 중점 업종 기업의 화이트 리스트를 발표하고 공장가동을 재개했지만, 원자재 등이 이미 소진된 경우가 많고 물류가 원활하지 않아 정상적인 운영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임.
- **[물류]** 상하이항(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1위)과 상하이 푸둥국제공항(세계 항공화물 물동량 3위)은 봉쇄·통제기간 정상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지상조업과 운송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어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sup>20)</sup>
  - △주변 교통운송 제한으로 인한 화물트럭 진출입 애로 △검역 강화로 하역 인력 및 운송기사 등 인력 부족 △선적, 하역 지연으로 인한 대기 선박 수 증가 △항공편 취소로 인한 항공운임 가격 상승
  - 상하이 내 확진세가 이어지기 시작한 후 약 1개월간 상하이항에서 선적 또는 하역을 기다리는 선박의 수는 300척 정도로, 이는 2017~21년 평균인 75척보다 약 5배 증가한 수치
  - 국내 항공사의 경우 잇단 결항으로 항공화물 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육류와 과일 등 변질되기 쉬운 식품화물에 대해서는 현지 협력사가 냉장창고로 옮기는 작업이 중요하나 봉쇄로 인해 조업 여부가 매일 달라 차질이 있는 상황임.

17) 「中 베이징 봉쇄 확대...이동 통제·등교수업 중단」(2022. 4. 29), SBS, <https://biz.sbs.co.kr/article/2000060445>; 「이랜드 상하이 매장 22일째 영업중단...포스코 생산감축 우려」(2022. 4. 18),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64QQDXI8Q>(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2. 4. 30).

18) 상동.

19) 최원석(2021), 「중국 화동지역의 14·5 규획기간 경제정책 방향 및 전망」, p. 7; 「新冠疫情:「封控」带来次生灾害 如何影响上海」(2022. 4. 22), <https://www.bbc.com/zhongwen/simp/chinese-news-61182858>(검색일: 2022. 4. 30).

20) 「중국 주요 지역 봉쇄 확산에 대비하여 진출기업 및 공급망 영향 점검」(2022. 4. 19),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pp. 1~2; 「상하이 봉쇄로 인해 촉발되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는?」(2022. 4. 4),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410&CONTENTS\\_NO=1&bbsSn=242&pNttSn=193825](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410&CONTENTS_NO=1&bbsSn=242&pNttSn=193825); 「상하이, 코로나 봉쇄로 지상 조업 차질... 제2 물류대란 우려」(2022. 3. 31),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2/03/31/JULBI3YDOVD7LEFRFO5VZ7MEMY/>(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2. 4. 29).

- **[산동]** 한국의 대산동성 투자는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sup>21)</sup> 특히 '와이어링 하네스(자동차 부품)'<sup>22)</sup> 생산법인이 밀집해 있는데, 지난 3월 웨이하이시 봉쇄로 국내 자동차 제조 공급망에 타격을 주었음.
- **[제조업: 자동차]** 한국의 대산동성 투자 중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2017~21년, 누계), 대산동성 수입 1위 품목은 와이어링 하네스를 포함하는 절연 전선 케이블·광섬유 케이블임(HS 4단위, 2016~18년 기준).<sup>23)</sup>
- 국내 와이어링 하네스 시장은 현재 유라코퍼레이션, 경신, THN 3사가 과점하고 있는데, 3사의 해당 부품 생산공장은 중국 산동성(칭다오시, 웨이하이시, 허저시, 룡청시)에 집중되어 있음.<sup>24)</sup>
  - 3사 모두 중국에서 생산한 와이어링 하네스를 국내로 들여와 현대차와 기아에 공급하며, 2020년 기준 공급 비중은 유라코퍼레이션(48.2%), 경신(40.3%), THN(11.5%) 순임.
- 지난 3월 웨이하이시가 봉쇄되면서(현재 해제) 3사의 공장가동이 중단되고 제품 출하가 중지되어, 현대차가 주요 차종의 국내 목표 생산량을 30% 줄여 감산에 돌입한 바 있음.<sup>25)</sup>
  -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도 와이어링 하네스 부족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가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음(당시 1개월간 현대차는 8만 대, 기아는 4만 대 생산 차질).
- **[베이징]** 4월 30일 기준 베이징 내 6곳(대부분 차오양구)이 고위험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일부 도·소매 업종이 먼저 타격을 입었고, 향후 봉쇄가 확대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자동차 제조 업종의 피해가 예상됨.
- **[서비스업: 도·소매업]** 베이징은 상하이에 이어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 투자 2위 지역이고(약 25%, 누계),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도·소매 업종의 영업 및 서비스 법인이 다수 위치해 있는데, 일부 지역 봉쇄로 도·소매 업종 기업이 오프라인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sup>26)</sup>
  - 이랜드의 경우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 매장 10여 개도 영업을 중단한 상태임.<sup>27)</sup>
- **[제조업: 자동차]** 또한 한국의 대베이징 전체 투자 중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이 약 20%를 차지하고 (2017~21년 누계), 특히 현대차의 중국 생산 공장 5개 중 3개가 베이징시 순의구에 위치해 있어 해당 지역 봉쇄 시 생산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21) 한국의 대산동 주요 투자 업종은 △제조업(85%) △농업, 임업 및 어업(6.1%) △금융 및 보험업(1.5%) 등이고, 제조업 세부 업종으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외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이 있음(2017~21년 누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sub/detailedCondition.do>(검색일: 2022. 4. 29).

22) 와이어링 하네스는 차량용 전선 다발로, 각 부위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 및 전류를 부품 상호간에 전달함.

23) 김주혜(2021), 「중국 환발해지역의 14·5 규획기간 경제정책 방향 및 전망」, pp. 6~8.

24) 3사 홈페이지: 「위기 맞은 와이어링 하네스 업계, 올해 실적도 먹구름」(2022. 3. 31),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http://www.thelec.kr/news/articleView.html?idxno=16543>(검색일 2022. 4. 30).

25) 「중국궈 북부난에 현대차 울산 공장 2주 연속 특근 중단」(2022. 3. 23),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industry/car/2022/03/23/K71OZZAJL5E7ZLHJQIU7ONPHJA/>(검색일: 2022. 4. 30).

26) 한국의 대베이징 주요 투자 업종은 △제조업(57.1%) △금융 및 보험업(14.5%) △부동산업(11%) △도소매업(9.1%) 등이고, 제조업 세부 업종으로는 △차 금속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대베이징 제조업 투자의 약 60%를 차지하며, 그 외에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식료품 제조업 등이 있음(2017~21년 누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sub/detailedCondition.do> (검색일: 2022. 4. 29).

27) 「단독」 中 베이징 차오양구 봉쇄...이랜드 매장 10여개 '영업 중단」(2022. 4. 27), News1, <https://www.news1.kr/articles/?4662514> (검색일: 2022. 4. 30).

### 3. 전망 및 시사점

#### 가. 전망

■ 중국은 적어도 2022년 말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면서 산발적 집단 감염에 강력한 통제조치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됨.

- [20차 당대회] 5년마다 개최되는 중국공산당의 가장 큰 정치적 행사인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2022년 가을 베이징에서 개최되며, 여기서 시진핑 총서기의 3연임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여 중요 정치 행사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를 3연임을 위한 치적(治績)으로 부각시킬 것으로 보임.
- [아시안게임 연기]<sup>28)</sup> 중국은 올해 2월 초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각종 국제경기를 취소 및 연기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억지에 더 무게를 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백신 개발] 중국은 오미크론 등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가 높은 mRNA 백신을 자체 개발하고 있으나 임상시험을 거쳐 사용 승인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적극적인 통제조치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sup>29)</sup>
  - 중국은 다섯 종의 백신을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오미크론 등 변종에 대해 효과가 높은 mRNA 백신은 아직 개발 중이며, 외국산 mRNA 백신에 대한 수입도 승인하지 않고 있음.
- [민족주의 심화] 중국사회 내 민족주의 정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식 방역정책인 '제로 코로나'를 서구식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단기간에 전환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중국정부가 외국산 mRNA 백신에 대한 수입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도 자국산 백신에 대한 저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치적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sup>30)</sup>

■ 최근과 같은 산발적 집단 감염이 통제 불능의 대규모 감염 사태로 확산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나, 강력한 통제정책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은 불가피할 전망

- 중국정부의 강력한 봉쇄정책 시행 후 주요 지역 내 감염 재확산이 대체로 약 1개월 경과 후에 안정세를 나타낸 바 있어, 전면 봉쇄 후 1개월이 경과한 상하이에서의 감염 확산도 조만간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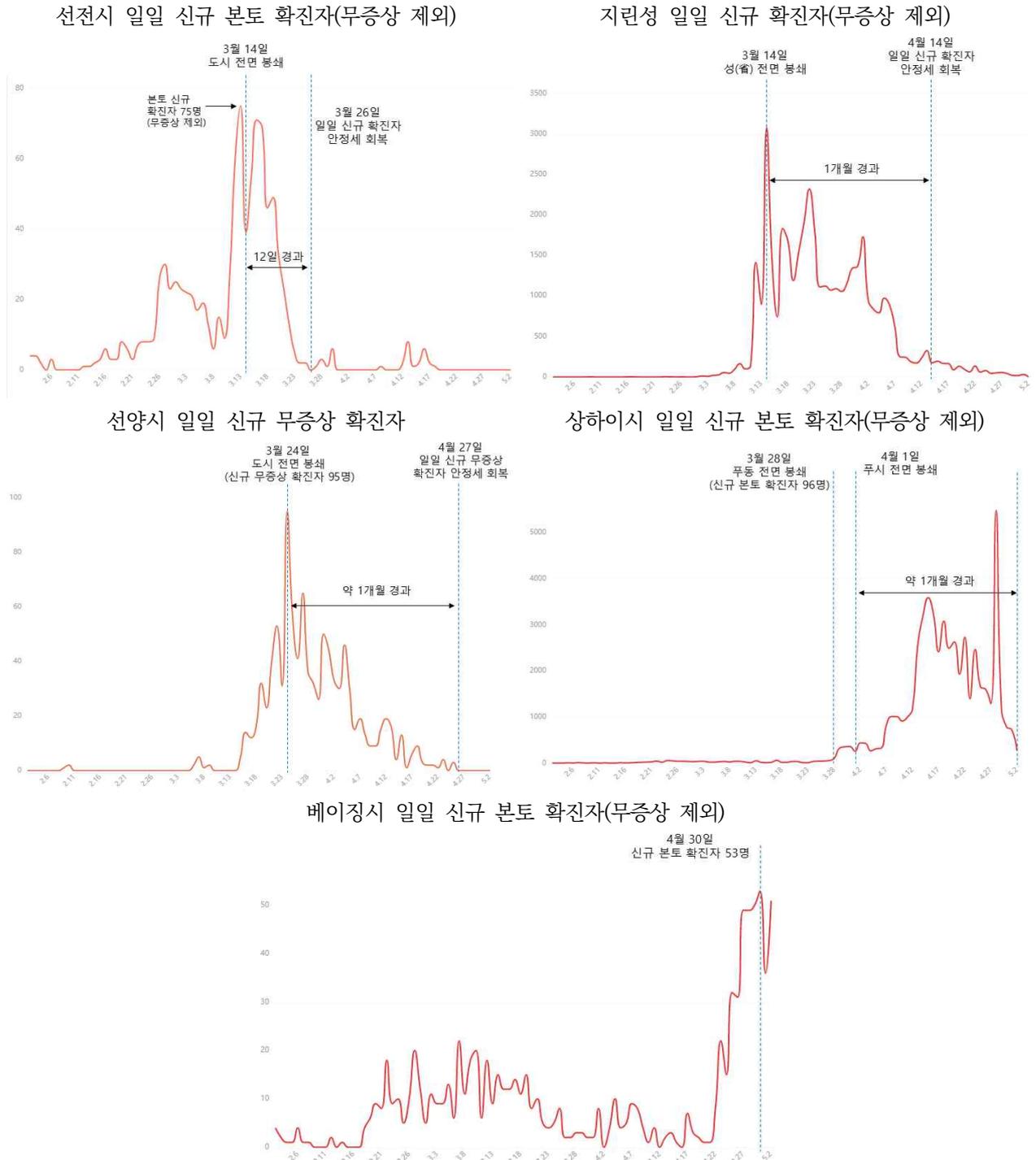
28) 중국정부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의 협의를 거쳐 9월 10일 항저우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19회 아시안게임을 연기하기로 결정함(新华网, 「杭州亚运会将延期举办 汕头亚青会取消」, [http://csj.news.cn/2022-05/07/c\\_1310585607.htm](http://csj.news.cn/2022-05/07/c_1310585607.htm)(검색일: 2022. 5. 8)).

29) 중국의 '시노팜 베이징 생물제품연구소'도 오미크론 전용 불활성화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을 개시했지만, 이 또한 최종 사용 승인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新京报, 「奥密克戎疫苗进入临床试验, 抗疫再添关键一招」, <https://www.bjnews.com.cn/detail/1651567801169319.html>(검색일: 2022. 5. 8)).

30) 연합뉴스, 「중국의 코로나 최대 실패는 mRNA 백신 접종 안 한 것」,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7070800074?input=1195m> (검색일: 2022. 5. 2).

- 선전시와 상하이시, 그리고 선양시 등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베이징 내 일일 신규 확진자(무증상자 제외)가 100명에 육박할 경우 베이징시 전체에 대한 봉쇄조치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됨.
- ※ 다만 베이징시의 경우 단순히 확진자 숫자뿐 아니라 수도의 상징성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될 것으로 보임.

그림 7. 전면 봉쇄 실시에 따른 중국 주요 성(省)·시(市)의 확진자 변화 추세



자료: 바이두 “疫情实时大数据报告”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베이징시의 감염 재확산 추세가 조기에 수습되지 못하고 도시 전체에 대한 봉쇄조치로 이어질 경우, 그리고 하반기까지 봉쇄 지역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이에 따른 경제적 충격으로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은 목표치 달성이 어려워 보임.
- 베이징시 전체가 봉쇄될 경우, 서비스업과 자동차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도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나. 시사점

### ■ 당분간 한중 양국 사이의 방역체계가 크게 상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됨.

- 한국에서는 코로나19가 1급에서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전환됐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변경 및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이 실시되면서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음.
- 반면 중국은 정치적·기술적 이유 등으로 당분간 '제로 코로나' 정책을 견지할 것으로 보이며, 강력한 통제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방역정책의 차이로 인해 양국 사이의 교역 및 인적 교류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비대칭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양국의 수출입 상품에 대한 방역 절차 차이에서 오는 교역 지연이나, 유학생 또는 기업인의 입국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호주의 저축 논란이 가중될 수 있음.

### ■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재중 한국인 및 한국기업의 고충 처리와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강력한 통제정책에 따라 우리 교민이 겪고 있는(또는 겪을 수 있는) 기본권 침해 문제와 자영업자 및 기업의 손실 문제 등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 차원의 대책을 더욱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상하이와 장쑤성을 중심으로 인근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석유화학, 철강 등 핵심 부품과 원자재를 공급하는 주요 한국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는바,<sup>31)</sup> 해당 지역의 봉쇄조치가 장기화된다면 이들 기업에 대한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장쑤성에는 우시시에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창저우시·옌청시에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난징시에 LG화학 전기차 배터리 및 소형 배터리 공장이 소재해<sup>32)</sup>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또한 5월 3일 기준 산둥성 내 중위험구역 4곳은 모두 옌타이시에 있는데, 옌타이시에는 한중 FTA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으며, 한국기업의 생산법인이 밀집되어 있어(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대우조선해양,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 등) 방역조치에 따른 영향이 우려됨.

31)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관련 우리기업 피해 최소화 및 한-중 경제통상 협력 방안 논의(2022. 4. 30),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p. 2.

32) 최원석(2021), 「중국 화동지역의 14·5 규획기간 경제정책 방향 및 전망」, p. 7.

### ■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 등 비인위적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위협 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체제 점검이 필요

-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공급망 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에 대한 논의가 주로 교역 상대국의 정치·경제적 의도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전쟁, 또는 수송로 안전 등에 맞춰져 있으나, 이번 코로나19 재확산과 같은 비인위적 돌발상황 및 자원고갈로 인한 수출 불가 등의 요인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함.
- 특정 소재 및 부품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중국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이 발생할 경우 공급망 불안으로 이어져 경제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해당 제품에 대한 공급망 다변화로 민감성(sensitivity)과 취약성(vulnerability)을 강화함과 동시에 중국과 코로나19 방역 협력도 병행해야 할 것임.
- 특히 윤석열 신정부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한중관계와 관련하여 ‘경제·공급망·보건·기후변화·환경(미세먼지)·문화교류 등 분야 중심 협력 확대’<sup>33)</sup>를 제시한 바 있어, 경제안보 관리 차원에서도 중국과 코로나19 관련 협력을 강화 및 확대할 필요 있음. **KIEP**

33)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22. 5. 3),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p. 165.